

1980년대 문화정책과 한국연극협회 기관지 『한국연극』의 상관관계 연구

양세라*

〈차례〉

1. 1980년대 문화정책과 한국연극
2. 연극협회 기관지 저널 『한국연극』의 편집진 구성과 편집방향
3. 1980년대 문화정책 수행과정을 반영한 특집기사
 - 3-1. 문화정책과 연극정책 실행과정
 - 3-2. 대학연극과 지방연극제 조사와 보고서
 - 3-3. 문화정책의 본질, 국민교육과 연극담론
4. 1980년대 연극정책현장 아카이브의 토대로서 『한국연극』
 - 4-1. 소극장과 공공극장의 형성
 - 4-2. 연극제 참가작 창작회곡과 극작·연출노트 수록
 - 4-3. 비평공모와 신진평론가의 등단
5.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연극(The Korean Drama Review)』을 조사한 것이다. 이 잡지는 연극현장 기록을 생산한 월간형식의 연극저널이다. 1980년대 발간된 저널은 테이터화된 자료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연극텍스트를 다수 수록하였다. 기본적으로 희곡, 대본, 연극비평, 연극제도 변화과정, 연극사 자료, 극작가와 연출가의 창작노트, 해외연극동향, 해외연극미학, 연극인 인터뷰, 극단, 배우, 공연레퍼토리 연감 등 이질적인 성격의 연극관련 기사텍스트가 백과사전적으로 수록되었다. 1980년대 『한국연극』은 예술전문지보다는 한국연극협회를 대변한 정기간행물로서 연극저널 성격이 짙다.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본문에서는 『한국연극』이 1980년대 이전 연극잡지의 학술적인 특징과 다른 저널의 특징에 대해 기술했다. 다양한 설문조사와 보고서를 토대로 구성된 기사의 성격은 이전의 연극잡지들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비평 등에 한정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이 잡지의 저널적 특징이다. 이것은 적극적인 취재행위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을 매개로 저널을 구성한 저널 내부의 구성 방식 변화 때문이다. 그런데 당대 연극활동과 연극현장을 탐방취재하고 설문조사를 기록하는 기사들은 1980년대의 연극현장이 정부당국의 정책변화와 긴밀하게 관련 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내용은 1980년대 공연법 개정과정, 연극인 환경과 의식조사, 관객의식 조사 등이 당국의 문화정책변화를 수행한 정황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연극』에 나타난 1980년대 연극환경의 다변화는 자율적 구성이기 보다 대한민국연극제, 지방연극제 등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대응한 결과였다. 이점은 『한국연극』에 수록된 당대의 연극환경을 조사한 자료들이 통계자료와 같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를 반영한 보고서와 특집기사로 편집되고 배치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특정계층이나 전문가집단이 저널의 편집과 기사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취재원과 편집진이 활동하는 방식으로 변화는 뚜렷했다. 예를 들면, 좌담이나 대담과 같은 논쟁적 대화를 매개로 한 연극비평 담론형식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처럼 연극예술전문지를 구성하는 방식의 변화는, 연극비평 방식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연극』은 연극인과 연극활동 현장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한 매체였다. 그리고 1980년대 연극정책과 관련한 자료들로 하나의 아카이브를 구성할 만 하다. 아카이브의 토대로서 수록한 자료들은 첫째, 연극인 협회 정보와 1980년대 각 민간극단의 인명정보와 단체정보, 공연 레퍼토리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한 점이다. 이 기록은 '연감' 양식으로 수록되었다. 둘째, 다양한 연극축제와 이벤트, 극장공간 관련 기록을 수록했다. 셋째, 검열기관이 존재했던 시대에 기관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후원을 받은 연유로 다양한 연극담론과 연극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독재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현장보고서는 연극전문지와 다른 형식의 연극기사 텍스트를 생산했다.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연극』은 1980년대 문화정책과 관련한 연극아카이브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한민국연극제, 연극아카이브, 연극저널, 『한국연극』, 1980년대 문화정책

1. 1980년대 문화정책과 한국연극

연극은 한 시대의 정서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1980년 1월호부터 1989년 12월호까지 10년간, 약 120호에 달하는 월간지 『한국연극』지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980년대 『한국연극』은 절반의 시기를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이 수행된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5공화국 문화정책이 실행되는 것에 상호작용하고 대응한 연극협회를 중심으로 연극계가 정치적으로 행동한 과정이었다. 본고에서는 1980년대 사회문화 영역 안에

서 『한국연극』이 연극저널로 존재한 방식과 자기형식을 형성해 나간 배경에 1980년대 정부당국의 문화정책과 긴밀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980년대 이전 시대 연극전문잡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연극』은 연극관련 논문이나 미학적 이론지식에 한정된 텍스트보다 상대적으로 당국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텍스트를 다수 수록했다. 또한, 문학적이고 교양예술의 영역으로 연극을 인식하도록 만든 이전의 연극전문잡지와 달리 문화정책과 사회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관련기사와 보고서로 잡지를 구성하였다. 이는 연극협회 기관지로서 『한국연극』의 마땅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널리즘은 활자나 전파를 매체로 하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의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나 기사,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경영 등의 제반 활동 등을 가리킨다. 저널리즘을 작동하는 원리에는 정기적 출판행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동시대적 시사정보와 견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저널리즘이라 일컫는다.¹⁾ 이러한 규정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동의어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연극협회 혹은 연극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하는 의사전달 행위를 반영한 1980년대 『한국연극』의 역할은 매우 정치적이다²⁾. 1980년대는 헌정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조항이 신

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2) 한국연극은 10년을 주기로 저널로서 한국연극의 위상을 성찰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 1980년 10월호에 수록된 <저널리즘과 연극>이라는 주제의 좌담회(座談會)는 당시 『한국연극』이 기관지 혹은 협회보에서 저널로서 성장하고자 성찰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연극』은 한정적인 계층을 독자로 하는 연극전문지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당대 연극 관객에게 연극저널로서 영향력을 미친 신문과 같은 저널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 토론 참가자의 면면을 보면, 이 결론이 상정하는 바는 분명하다. 좌담회 때: 9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곳: 연극협회사무실. 좌담 참가자, 정충현(조선일보 기자) 김유경(경향신문 기자), 김의경(현대극장 대표), 윤호진(실협극장 소속 연출가), 정진수(민중극장 대표) 이들은 빠르게 변하고 양적으로 팽창한 1980년대 다양한 연극공연의 변화를 대중적인 독자들에게 전달해줄 저널리즘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저널리스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의 대화가 반영한 것은 관 주도 아래 형성된 연극제(예를 들면, 대한민국연극제)의 구조에서 창작극 증가와 다양화된 스타일이 공존한

설된 제5공화국이 등장하였다. 이 사실은 『한국연극』의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지 저널의 특성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제5공화국은 문화창달을 위한 장기적인 국정운영의 방안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연극 문화 사업과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문화복지와 문화시설, 제도 개선, 그리고 정부투자예산 등이 해당되어 있다³⁾. 이처럼 1980년대 문화정책은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이었고, 『한국연극』이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연극관련 기사와 보고자료들은 정부당국의 정책에 대응하기 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수용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연극』에서 연극문화정책은 연극협회를 매개로 수직적인 수용과 실행의 프로세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시 정부정책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받은 사실은 『한국연극』의 정책변화에 임하는 다수의 특집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제5

80년대 한국연극의 특징이다. 이 좌담회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공연리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숙경, 「한국연극의 저널리즘 비평연구- 80년대 일간지 비평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면 참고. 이 논문은 세 일간지(『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선택하여, 동시대 잡지보다는 일간지가 저널리즘의 속성을 더 잘 드러낸 비평장소로 보았다.

- 3) 대표적인 모델은 프랑스에게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프랑스는 195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 탈 중앙집권화 방향을 수용하고 문화의 다극화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문화생활 중심에 자리매김하며 지속이고 역동인 발전책을 추구했다. 장기적인 실험과 보완과정에 비해 1980년대 한국의 국가정책 시행내용과 시행방식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보여준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문화가 정신을 대표한다는 오래 된 역사속 공화주의 시대에서도 앙드레 말로라는 세계적인 작가를 통해 국가 재건의 이념을 ‘문화 민주화’의 개념으로 승화시키는 창조인 발상을 실행했다.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문화 민주화’ ‘지방 분산화’ 등 1980년대 프랑스 문화정책의 골격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문화를 개인의 창작활동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가의 자산이라는 의식에서 공공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서로 경쟁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하고 발전하도록 했다. 황혜진, 「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유라시아연구』 7권1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354-356면 참고.
- 4) 당시 정부의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논의를 구성한 정황은 특집논단의 형식으로 다수의 연극인들의 의견들로 기사화되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연극을 기본 자료로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사제목과 글쓴이 수록시기를 중심으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이재인·이중한·이태주, 「헌법시안과 연극·공연법에 대한 관심·공연법과 소극

공화국은 공연자 등록 자유화, 관람료 자율화, 소극장 설립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통한 연극계의 양적성장과 한국 연극의 국제교류를 촉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연극』은 1984년 다른 여타 문예지들이 나라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1/3도 안된다며, 재빨리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협회를 대변한 기사를 수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한국연극과 협회가 정부지원과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인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1970년대 유신체제 시절에 시작되었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공연각본 심사제도와 같은 검열과 통제에 대한 언급은 1987년 이후에나 공론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현실적으로 당시 정부는 정치사회적으로 비판적 시각과 내용을 포함한 연극 대본을 검열해 공연금지 처분을 내리는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이 제도는 1989년 여·야의 합의하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상의 배경을 전제로 할 때, 1980년대 『한국연극』의 저널로서 의의는 잡지에 게재된 공연예고 기사부터 화제기사, 평가기사 등을 단순하게 작성하거나 편집한 것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연극』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극관련 텍스트들은 1980년대 정책적 변화와 재정적 지원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극잡지가 당대 한국연극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 정리한 텍스트들을 생산함으로써 연극사적으로 ‘보존’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은 상황적으로 매우 적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지로서 『한국연극』이 처한 1980년대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연극』은 정책실행을 전달하는 저널로서 자기형식을 구축

장—현행공연법, 문제 있다」, 1980년 4월호. 64-79면 참고. 문예진흥원 부원장, 「연극예술과 지도정책—권두대답」, 1980.7. 16면 참고. 김정옥, 「무대예술과 문화정책—권두대답」, 1980.8. 54-59면 참고. 차범석·이중환, 「“새 문화정책” 발표와 관련하여—긴급대답」, 1981.7·8. 18-22면 참고. 이낙훈, 「문화예술정책 개발기구」 구성을—초대석」, 1981.7·8. 18-22면 참고.

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저널로서 성찰을 위해 일간신문이나 이전의 연극전문지가 텍스트를 구성한 방식을 관례적으로 수용하고 모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부분은 공연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재현한 기록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수록된 점이다. ‘좌담회’ 혹은 ‘대담’의 형식으로 대화상황을 매개로 한 『한국연극』의 편집구성은 연극문화 정책의 변화와 수행에 관련된 내용에서 특히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이 연속성은 논쟁적인 현장기록을 수행하기 위한 좌담회(座談會)와 대담(對談)이라는 편집형식에서 자주 확인된다. 물론, 대화와 토론, 인터뷰 형식의 기사 방식이 새로운 저널 형식은 아니다. 연극협회는 정책의 변화와 수용과정을 대화주제이자 대화의 과정, 방식 그대로 『한국연극』에 기록했다. 1980년대 『한국연극』에서 자주 공론화된 연극현장과 정책현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며, 그 사안의 긴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사작성과 편집 형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공연법의 경우 공연법을 알리기 위한 연극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좌담회로, 그들의 대화는 연극현장의 실태를 전하는 설문조사 형식이 되어 『한국연극』 기사나 보고서, 결의문, 제안서 등 텍스트로 수록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한국연극협회 주요사업의 실행내용은 『한국연극』 편집형식에 연극관련 기사와 보고서 등의 텍스트에 반영되었다.

5) 예를 들면, 지령 100호 특집기사 같은 경우다. 「특집 좌담회: 한국연극 10년의 성과와 전망 (1984.8.28, 오후 5시 / 본 협회 회의실 / 참석자: 차범석(극작가), 김정옥(연출가, 중앙대교수), 이태주(평론가, 단국대교수), 김길호(연기인), 정진수(연출가, 성균관대교수), 노경식(편집위원, 극작가)」

2. 연극협회 기관지 저널 『한국연극』의 편집진 구성과 편집방향

『한국연극』은 한국연극협회에서 연극발전의 분수령이라 본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계기가 되어 협회 기관지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한국연극협회 기관지는 1976년 1월 정식으로 창간되었다. 당시 연극협회이사장이었던 이순진의 주도로 문예진흥원의 기금을 받아 발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연극』 이전에도 정기간행물로서 『연극』, 『드라마』, 『연극평론』 등 연극을 알리는 매체는 존재했다⁶⁾. 그러나 이들은 학술적 잡지의 성격이 짙었다. 이 사실은 연극협회의 기관지로서 『한국연극』과 가장 큰 차이이다. 연극 제반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키며, 국내외 연극정보를 게재함으로써 연극발전의 근원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힌 『한국연극』의 발행목적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국내외 신작희곡의 게재로 창작희곡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 연극인의 참여지로서 연극인 상호간의 친목을 꾀하고, 건전한 비평 확립, 관객의 저변확대 및 관객 교육을 위한 안내, 계몽자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연극정보 교환을 위하여’라고 말한다. 김재형의 증언은 창간시기 『한국연극』이 연극현장의 다양한 현실과 1980년대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 저널로서 방향과 편집구성을 전해

6) 70년대 들어서 전문적인 연극지면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연극평론사에서 발행된 『연극평론』, 같은 해 12월 민중극장 기관지로 창간된 『민중극장』은 1호로 중간했다. 이후 1971년 1월 실험극장 기관지로 창간된 『우리무대』는 통권 7호까지 발간되었다. 같은 해 5월 현대연극사에서 발행한 『현대연극』 역시 통권 5호까지 발간했다. 12월 드라마사에서 발행한 『드라마』도 통권 5호까지 발간되었고, 1973년 10월 무크지로 발행된 『현대드라마』는 1권으로 중간했다. 1970년대 연극잡지가 잦은 발간과 폐간 사이에서도 다수 존재했던 사실은 당시 한국연극의 성장을 반영한 현상이다. 이 진아는 이 시기를 연극 전문지 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 존재했던 연극 전문지에 대한 저널 혹은 미디어로서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재조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일, 「한국연극잡지, 서지고 1」,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88.11. 이진아, 「1970년대 연극전문지 시대와 『연극평론』」, 『한국극예술학회 2019년 제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48-49면 참고.

준다⁷⁾. 그리고 『한국연극』은 무엇보다 연극협회를 대표하는 기관지이다. 따라서 연극연감이나 극단연감, 공연연보, 배우연감 등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수록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수록된 연극관련 연감들은 협회지 저널로서 『한국연극』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전 시기 연극전문지의 학술적인 텍스트는 1980년대 『한국연극』의 편집관레처럼 남아있다. 그 관례는 유럽 현대연극과 극작가들에 대한 해외 연극론과 동시대 해외연극동향을 소개하는 <유럽 연극의 동향>, <해외 연극싸롱>, <해외화제>, <해외논단> 등 주로 1980년대 초창기에 수록된 연극이론과 논문 등 학술적인 연극텍스트에서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연극』에 수록된 학술적 텍스트들의 존재와 편집과 배치 등은 다수의 연극전문지가 등장했던 1970년대에 연극잡지와 계보사적으로 연속되어있다. 바로 직전 70년대 연극저널은 동시대 연극 현상보다는 학습된 지식을 전달하는 저널로서 역할한 부분이 컸다. 대부분 연극전문지는 해외연극미학을 학습하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비평 글쓰기를 수행했다. 1970년대 연극전문지는 주로 필진들로 활약한 연극비평가의 역할과 태도와 연관이 깊었다. 그것은 연극을 학술적 대상으로 다루면서 연극에 대한 전문지식을 생산하고 연극담론을 유포하는 사회계층으로서 연극비평가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연극저널을 활용했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70년대 연극비평가들은 연극전문잡지를 통해 연극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연극이론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와 기획의 형식으로 게재했고, 동시에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서 당대의 연극 공연을 평가하는 행위까지 병행했다. 김윤정에 의하면, 70년대부터 연극전문 잡지, 이른바 연극저널은 평론가그룹으로 대표되는 존재들이 연극 혹은 연극공연에 대해 발언하는 필진들로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들의 글쓰기는 학술적이면서 동시에 연극미학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이 짙었다. 결과

7) 『한국연극』의 발행목적은 김재형의 '창간과 오늘—격세지감의 연극지 14년'(1984.9) 참고.

적으로 70년대 연극전문지는 연극이론으로 무장한 비평가 계층의 전문가 주도로 필진이 구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연극담론이 생산되고 그들이 다시 이를 소비하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유통된 셈이다⁸⁾.

1980년대 『한국연극』에도 연극전문지의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논문이나 이론중심 텍스트는 수록되었다. 당시 해외유학생들을 통신원으로 활용하여 동시대 해외 연극이론이나 연극미학과 연출이론 소개를 지속적으로 수록하였다. 그리고 기성학자들과 신진학자들의 근대 연극사와 극장사, 전통 연극론 등 한국연극사를 구성할 수 있는 관련 논문들을 다수 수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양의 연극관련 텍스트들은 당대 현안을 지면에서 논쟁적으로 다룬 다수의 특집기사와 특집논단이었다. 이들은 매월호 머릿기사로 목차에 배치되었다. 이 점은 일면 지난 시대의 연극잡지와 연속적인 편집특징이기도 하다. 1960년대 발행되었던 『연극』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발간이 지속되지 못했고 2호로 중단되었는데, 주목할 사실은 『연극』지 발간인이 이진순이라는 점이다. 이후 이진순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되고나서 『한국연극』을 1976년 1월 창간했다. 이 사이에서 이진순이 이전시기에 잡지 『연극』을 발간했던 행보와 편집과 발간의

8) 김운정, 「1970년대 연극평가들의 부상과 정전화의 시작」, 『극예술연구』 제3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0, 57-58면 참고. 이외에도 다른 시대의 연극저널 연구를 참고했다. 김유미의 연구는 1950~60년대 종합교양지의 연극기사와 이를 담당할 필자를 통해 연극전문비평의 영역이 분화되고 오랫동안 연극비평이 문학성에 근거해 구성된 지점을 살폈다.(김경숙, 「1950~60년대 연극전문비평 형성 과정에서 종합교양잡지의 역할—에 디토리얼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56호, 드라마학회, 2018, 37-76면 참고) 김경숙은 같은 시대에 연극전문지를 대신한 종합교양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김경숙, 「한국연극사에서 〈사상계〉의 위치연구—연극전문지 공백기(1950~60년대)의 〈사상계〉극문학 수록양상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9호, 한국문학회, 2018, 345-386면 참고.) 다음으로 해방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연극전문지 『연극』에 대한 이진아의 연구논문은 『한국연극』 발행인과 편집체계 등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진아는 이 연구에서 “『연극』은 해방 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연극전문지라는 점, 저널과 현장의 관계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는 점, 비평지와 학술지의 역할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는 점”을 이 저널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이진아, 「연극전문비평과 연극학 형성기의 계간 『연극』의 의미」, 『한국예술연구』 22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8, 77-78면 참고.)

경험은 『한국연극』 초창기 편집진과 편집방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당대 연극현안을 논쟁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연극』의 편집방향은 『한국연극』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었다.

창간 초기 편집위원 구성면모를 보면, 김정옥, 김의경, 이근삼, 차범석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편집위원 이하 구체적인 편집자의 이름은 『한국연극』에 거론되거나 명시되지 않았다. 발행인과 편집위원 이름만 밝혀져 있었으나 이후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편집자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창간부터 편집업무를 혼자 맡아했던 김재형은 이후 1986년 4월호부터 정식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게 된다. 초창기 편집업무경력과 연극협회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표1은 1980년대 편집진을 구성한 인원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 기록과 이상의 편집방향을 통해, 1980년대 한국연극의 편집위원이 연출가와 비평가, 언론인, 학자 등으로 구성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편집위원들은 대개 한국연극협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정부분에서 이 잡지의 전문적인 필자였던 사실만으로 이 잡지의 정체성을 대변하여 활동한 정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1983년부터 『한국연극』이 전문 편집주간 책임제로 변화한 사실과 편집방향의 변화는 편집위원의 활동과 상관성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편집방향이 정책소개와 정책실행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여, 연극현장과 연극사건을 탐방, 취재, 보도하는 성격이 두드러진 점은 1980년대 이 잡지의 성격 변화를 상징한다.

발간 연도	편집위원	편집장	주간	협력인원
1980	임영웅, 차범석, 이근삼, 정진수, 유민영	김정옥 (편집 겸 발행)	임영웅 (상임위원)	-
1981	임영웅, 차범석, 이근삼, 정진수, 유민영, 김동훈	김정옥 (편집 겸 발행)	김동훈	-
1982.5 ~ 1983.1	임영웅, 양혜숙, 정진수, 문고현, 김동훈, 윤조병(7월호 이후 참가)	김정옥 (편집 겸 발행)	(상동)	-
1983.2-3	정진수, 권오일, 노경식	김경애 (전문편집)	정진수	최형범(사진), 안상수(아트디렉터), 조의환, 전순원, 이영미(미술) 강석호(제작과장) 방현(사무국장)
		김동훈 (발행인)		
1980.6.	(상동)	김영림,	(상동)	윤미수(사진) 성효중(미술) 서명숙, 서은주 (진행)
		송미숙 (9월호 변동)		
1984.8	이태주, 권오일, 노경식	오테리	(상동)	윤용환(사무국장), 동방인쇄공사 (미술, 1985.1)
1986.4	김우욱(위원장), 윤조병, 서연호, 구히서, 김방옥	김의경 (발행인)	김재형(주간), 오테리 (5월 이후 퇴직), 송애경 (편집책임)	윤용환(사무국장), 광고 및 업무책임), 서명숙, 김소영(서무), 김현봉, 김영민(미술), 허성윤(인쇄, 동방인쇄공사), 정용선(사진), 조영환(미술)

1986.8	(상동)	(상동)	김재형(주간), 송애경(기자), 김경애, 김석만, 김철리, 윤광진, 이성수(이상 직원기자)	(이하 변동분야 인원) 조두식, 석철현 (미술)
1987.6	김우옥(위원장), 윤조병, 서연호, 구히서	김의경 (편집 겸 발행)	김재형(주간), 박정영, 이유리나 (편집책임), 김철리, 윤광진, 이성수(이상 직원기자)	(상동)
1988.1	김우옥(위원장), 고승길, 김재형, 안민수, 오종우	(상동)	하태진(주간), 박정영, 이유리나 (편집책임), 김철리, 윤광진, 이성수, 우상전, 이병훈(이상 직원기자)	(상동)
1989.3	문고현(위원장), 이태주, 윤조병, 김홍우, 김석만	권오일 (편집 겸 발행)	박정영, 이유리나 (편집책임 기자), 김철리, 윤광진, 이성수, 우상전, 이병훈(이상 직원기자) 김홍우 (4월호 이후 주관기자)	(상동)
1989.8	(상동)	(상동)	장미선(편집장) 박정영, 이유리나 (편집책임 기자), 김철리, 송애경, 이운택, 박병도 (이상 직원기자)	(상동)

<표 1> 1980년대 편집위원과 편집진구성

1983년부터 『한국연극』은 전문 편집주간 책임제로 변화하면서 연극현장과 한국연극사건을 탐방, 취재, 보도하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각 대학의 극단과 공연에 대한 기획취재를 시작하고 소개하는 기사가 등장하고(〈대학극탐방〉), 각 호별로 지방극단을 취재하여 인력과 공연레퍼토리를 기록으로 남겼다(〈지방극순례〉). 편집부 주체로 연극현장을 취재하는 기사들은 반복, 지속, 확대되었다. 1980년대 『한국연극』은 눈에 띄게 르포형식의 텍스트 구성이 증가했다⁹⁾. 이 구성은 공연리뷰나 희곡, 연극미학 이론, 연극사와 같은 연구서들이 르포 기사들의 뒤로 밀린 지면의 편집체제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사의 배치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필진들에 의한 연극이론과 논문, 비평과 대비되는 글쓰기방식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널로서 『한국연극』이 변화하는 정책의 흐름에 적극 대응한 이 저널의 방향을 알려준 지표다¹⁰⁾. 이후 매 호의 특집기사와 기획기사의 제목은 이제, 학술적인 면보다는 한국연극의 현재에 대한 대화들로 선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안의 긴급함이나 중요도에 따라 긴급좌담 형식의 기사 자주 등장하면서 이 기사들은 정책의 변화와 연극현장의 긴밀한 관계구도를 보여주는 지표역할을 한다¹¹⁾. 당시 『한국연극』

-
- 9)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충실히 기록하거나 서술하는 보고기사 또는 기록문학. 르포르타주란 원래 프랑스로 탐방·보도·보고를 뜻하는 말이며, 약칭하여 '르포'라고도 한다. 르포가 소비되는 배경에는 교통과 매스컴(미디어)의 발달,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가장 크다. 때로 혁명적 기록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문학적 논리와 만나 의미 있는 문학 텍스트가 되기도 한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1. 참고.
- 10) 『한국연극』은 연극협회의 기관지 성격으로 출발한 지면이어서 자주, 편집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못했다고 지적받거나 자성하는 편집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편집자뿐만 아니라, 연극계에서 연극저널로서 『한국연극』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자주 언급되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한국연극』이 협회공보사항이나 알리는 회보의 경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받았다. 참고로 1980년 편집위원은 차범석, 정진수, 이근삼, 임영웅, 유민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편집위원은 비평가그룹에서 학자그룹, 연출가그룹, 연극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일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다.
- 11) '긴급좌담: 80년대 새문화정책 발표와 관련하여—정책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중환(서울신문 논설위원), 차범석(극작가, 극단 산하 대표)/연극협회 사무실에서)', 1981.7.8.

편집부에서 직접 취재까지 겸했던 편집인 양권일의 증언은 그런 정황을 잘 보여준다.

연극계의 핫이슈를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분석 조명하는 특집 논단 내지는 좌담을 기획하여 좋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보람을 느꼈던 일이며 지방연극인의 실태와 목소리를 담은 지방연극순례, 또 하나의 잠재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학연극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대학연극탐방, 공연장 및 연습현장 취재... 그리고 희곡문학 대계4·5권 발행 등(중략) 도식적이며 정직한 이론을 통한 지식보다는 작업장의 거친 호흡이 묻어나는 작품노트, 연출 노트, 그리고 연습일지는 통해 더 절실한 교훈과 방법론을 터득하게 됨을 우리는 안다. 편집 데스크 위에서 끝나는 평면적인 기사보다는 현장의 숨결이 전해지는 연극 각 분야의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찾아서 전해주는 『한국연극』이기를 진실로 바란다.¹²⁾

양권일은 편집부에서 직접 취재차 탐문과 조사방문을 일삼으며, 1980년대 『한국연극』의 생생한 연극현장기사와 보고서들을 작성했던 정황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용한 그의 증언은 당시 한국연극 현장에 대한 보도 기사를 포함한 연극관련 텍스트의 다양한 양식, 경향을 알려주는 증언이기도 하다. 1980년대 『한국연극』에는 취재와 보고 기사를 당대 연극사회에서 두드러진 사건(공연법 개정같은)을 알리는 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다수 생산했다. 그리고 인용한 증언처럼 지속적으로 각 호별로 연극현장을 중심으로 오가는 담론의 현장과 현상을 충실히 기록하거나 보고했다. 이러한 텍스트는 『한국연극』이 뽑은 연극계 베스트 사진, 연극베스트(창작극, 희곡)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10년간의 연극현장을 회고하고 기록한 기사가 되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양케이트(설문조사)와 같은 체계적인 통계자료 텍스트를 생산하는 토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통계자료

12) 양권일, 「참담한 시절의 행복감-격세지감의 연극지 14년」, 1984.9. 18면 참고

텍스트는 한국연극의 실상을 파악하는 다양한 현실과 조사방식을 증언하는 자료다¹³⁾. 이처럼 연극현장 조사를 근거로 한 보고서와 통계자료는 이 저널에서 지면을 구성하는 방식이자 1980년대 연극저널 형식이 생산된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연극잡지가 전문기자와 편집업무 담당자의 활동으로 재구성된 저널리즘의 현장 변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한국연극』은 저널리즘의 장이 연극의 원칙과 가치를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움직이기보다는 ‘경제적·정치적 권력의 유혹에 민감한 생산자들을 위해 기여하거나 혹은 집행하는 듯한 일련의 저널리즘의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⁴⁾.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1980년대 문화정책 아래 『한국연극』의 정체성이 구성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3. 1980년대 문화정책 수행과정을 반영한 특집기사

1980년대의 문화정책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총 4번의 문화정책이 발표, 개정될 정도로 의욕과 의지가 충만한 정책이었다. 7년동안 중장기 문화계획이 4번 발표되는 과정에서 5공화국의 문화정책의 근간인 ‘새문화정책’과 헌법에 ‘민족문화의 창달’이 명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3년부터는 ‘국민문화 복지’가 우선되면서 문화정책 계획은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일부로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되었다. 이 사실은 결국 제5공화국 이후 1980년대 사회에서 문화가 경제의 일부로 종속되는 관계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연극』에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화행사와 국제적 행사의 실행과 수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연극제의 활성화

13) 대표적인 조사연구보고서로 1986년 <한국연극인의 사회·경제·예술활동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문예진흥원이 지원하여, 서강대학교 부설 언론문화연구소에서 한국연극인의 실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의 통계자료다.

14) 이러한 저널의 속성은 피에르 부리디외의 ‘다른 장들의 구조와 상동적인 구조에 의해 조직된다’는 규정을 빌려 인용했다. 『텔레비전에 대하여(Sur La Télévision)』, 현백수 옮김, 동문선, 1998, 123면 참고.

화였다. 그런데 이 연극제는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었던 다수의 연극축제와 공연으로 80년대 문화정책을 상징하는 이벤트에 연극인들이 동원된 정도도 있다⁵⁾. 창작극 진흥 취지를 강조했던 이 연극제는 대개 20여 편의 희곡이 출품되면, 10여 편이 그 가운데 선정되었다. 그리고 각 극단에 의해 공연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창작연극이 활성화되고 창작공연을 위한 연출, 미술, 연기 등 분야에서 동반하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정통성이나 도덕성의 결여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빌미로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되는 사회적 구조가 발생했다⁶⁾. 당시 연극제와 발표 희곡 연극은 경연형식의 운영 때문에 성적을 의식한 작품 성향이 형성되고,大本심사와 같은 사전검열 등이 존재했다⁷⁾.

-
- 15) 제1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문화공보부 후원, 문예진흥원 주최로 개최되었다(21호 확인). 1977년 9월 9일~11월 9일까지 연극회관 세실극장, 시민회관 별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간에 극단 광장, 산하, 성좌, 가교, 제작극회, 민예극장, 민중극장, 여인극장, 에저포, 사계 등의 극단이 참가하였다. 민간 극단의 연극제 경연방식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연극제는 1980년부터 페스티벌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참가 극단에는 작품료와 대관료, 제작비로 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김문환, 「민주화, 다양화, 세계화, 한국 연극협회 편, 『공연사 II: 한국현대연극100년』, 월인, 2008, 317-366면.
- 16) 이 내용은 구광모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참고한 이 논문은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을 정권별로 파악하여 차이 변화의 방향,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대통령의 문화관련 선거공약과 문화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광모,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12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8, 1-17면 참고.
- 17) 이런 관계로 주제와 소재 면에서 관념적인 성향의 작품들은 대한민국연극제 작품작의 경향이 형성되기도 했다는 점이 비판받기도 했다. 이러한 희곡의 작품 제제는 주로 설화나 민담 같은 것에서 취해지는데,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근원성과 인간관계 본질성을 규명해 보고자 했던 노경식 작 〈탑〉에서도 지귀설화를 이용하고 있다. 〈모닥불 아침 이슬〉의 연출면에서 강유정은 ‘우주공간에 날줄과 씨줄을 그어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삶과 죽음 사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인생의 근원문제에 대한 관념적 연출성향을 밝혔다. 이상은 이영백, 『韓國 리얼리즘 演劇의 機能分析 : 大韓民國 演劇祭 참가作品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37-38면 참고.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방송심의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통제 체제를 확대하였으며, 문화공보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납본 필증 교부를 통하여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도 실질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반정부적인 각종 공연에 대하여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저지하였다. <공연법>, <음반법>, <저작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등을 개정하고, <언론기본법>, <박물관법>, <전통건조물 보존법>, <유성방송관리법>, <독립기념관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다¹⁸⁾.

인용한 바와 같이 5공화국의 문화정책은 표면적으로 민족문화창달과 진흥을 주도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리고 ‘광주사태’의 유발과 진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더불어 이 시기 문화정책이 전통문화를 축소적인 개념으로 이용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연극』에 반영된 전통연극, 마당극기사와 전통연극 미학과 비평담론 등 텍스트들은 민감하게 범주를 달리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상황에서 『한국연극』은 당시의 저항문화로 형성된 민중문화 즉, 문화정책의 반작용으로 형성된 연극문화영역은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연극』이 전하는 연극이벤트로서 대한민국연극제는 80년대 한국연극의 현실을 대변하는 저널로서 지위는 얻지 못한다. 정치적 이벤트 안에서 생산된 희곡과 연출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대중 관객입장에서 문화정책은 결국 심각한 문화적 분열이 발생되는데 일조한 것은 아닌지 차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¹⁹⁾.

18) 구광모, 앞의 글, 5면 인용.

19) 대한민국연극제 발표작을 통해 리얼리즘연극 논쟁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1984년 12월호에 실린 윤조병의 〈모닥불 아침이슬〉은 검열에 걸려 사회적 비판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에서 우주적인 세계관으로 작품의 의도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개작된 것으로

3-1. 문화정책과 연극정책 실행과정

80년대 초 연극협회는 소극장 개설에 관련된 공연법 개정에 십수년간 공을 들였다²⁰⁾. 80년대는 카페떼아트르 소극장의 개장이 위법으로 논란이 있었던 시절이었다. 당시 소극장을 통한 연극 활동을 불법으로 처리해 카페떼아트르의 이병복이 구류처분 받고 공연장을 폐쇄한 사건은 공연법 개선 담론을 확장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어불성설 조례(50호)」 사건처럼 대표 수수료 징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가 반발과 항의로 철회된 일도 있었다. 연극협회는 공연법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건의를 세 차례 제안하였다(51,54,55호 참고). 『한국연극』은 당시 자세한 정황을 「현행공연법 문제 있다」(51호 참고)는 주제로 언론인, 평론가, 연출가의 실제 공연장 문제로 싸우고 있는 연극인들에 대해 특집 논단을 마련하여 공론화 했다²¹⁾.

이후 한동안 지속된 공연법에 대한 논쟁(54호 참고)의 결과는 문공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연극협회의 ‘소극장 규제를 위한 건의문’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연극』은 이 내용을 근거로 당시 문예진흥원부원장과 대담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내용은 연극예술과 지원 대책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피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후에도 55호에서 7회 연극심포지움 발제

알려졌다. 1984년 제 8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한 작품이라는 이 사실은 1980년대 연극축제의 정치사회적 영향관계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결과 적으로 문화정책의 범위 안에서 저항문화와 소외집단의 문화예술에 대해 한국연극은 다루지 않았다. 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었을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윤조병의 경우, 검열과정을 거쳐 수정 후 80년대 대한민국연극제에 다수 참가했던 극작가이며, 해당 작품들이 『한국연극』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차후 주목할 만한 과제로, 대한민국연극제와 희곡, 극작법을 이해하는 틀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 20) 공연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63년, 66년, 75년에도 3차례 걸쳐 개정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연활동의 자율적 보장보다는 규칙조항이 많아 연극인들은 그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걸로 안다. 1984.10월호 기사 참고.
- 21) 1980년대 내내 연극계 공연관련법 문제는 연극저작권까지 확산되어 공론화되었다. 이 논의 과정은 1986년 8월과 1987년 6월 두 번에 걸쳐 “연극저작권 심포지움”의 기록으로, 그리고 결국 134호에서는 저작권법 발효를 앞둔 극작가들의 의견 공개까지 이끌었다.

원고를 통해 소극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를 지속했다²²⁾. 그리고 65호에는 「소극장 그 불안의 늪에서 헤어날 것인가」라는 주제의 좌담을 실행했다. 『한국연극』은 새로운 공연문화법, 대통령직선제에서 연극문화를 주요 공약대상으로 등장한 1980년대 연극현실을 기록하였다. 결국 공연법 문제는 연극협회를 중심으로, 1982년 국회의 문공위원회에서 공연법을 의결(71호 참고), 공연관람료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공연장과 특수목적의 공연장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다(82년 4월 73호 참고)²³⁾. 실제로 1982년은 공연법의 개정과 소극장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공연이 봄을 이룬 시기였다²⁴⁾.

1986년 9월에는 신민당의 개헌안 19조 2항 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에 우려한 한국연극협회는 연극인의 의견을 ‘제안서’로 보내고 수록하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연극협회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지원과 정책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12월에는 무대예술지원센터 설립에 대

-
- 22) 「무대예술과 문화정책」(김정옥), 「무대예술과 공연장」(이중환), 「소극장과 문화공간」(이상일)의 글이 게재되었다. 55호 참고. 이 논의는 이후 56호에서도 지속되었다. 「소극장 운영과 실태」(강준혁), 「엘칸토예술극장을 통해 본 우리 연극」(이윤영), 「해외연극 살롱」(정진수) 등 구체적인 소극장 운영을 통한 공연법 개정안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논의과정이 존재한 것을 엿볼 수 있다.
- 23) 후일 이 사건은 한국연극계 10대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법 설치허가제도 개선, 공연자 등록제도 개선(전속 출연자 등록제도 폐지), 관람료 한도액 및 인가제도 개선(비현실적인 제작비 책정하여 관람료를 정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 폐지), 3백석 미만의 연극전문소극장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설기준과 취소요건 완화, 1년 이상 공연실적 없는 단체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되었다.
- 24)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극단을 만들고 극장을 짓게 된 현실은 이상적이다. 그런데 이후 현실은 극장의 난립과 변칙적인 방법으로 관객을 모객하면서 대부분 이 시기 극장들은 극단과 연계 없이 대관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제도의 변화로 소극장이 증가했고, 그 결과 자율적인 연극제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시 『한국연극』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숙고하지 않았다. 김방옥은 이 같은 시대를 ‘돈 버는 소극장: 1980년대’ 시대로 비판했다. “1980년대는 마당극과 상업극이라는 양극적인 현상을 보였던 시대였다.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과 군사독재 하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을 고발하고 서구 근대식 무대극에 반대하는 마당극 계열의 연극들이 연극계를 휩쓴 것이 1980년대였다.” 『미학적 측면에서 한국소극장 운동의 흐름—이념, 혹은 생존? 우리의 소극장은 저항하지 않는다』, 『공연과 리뷰』 제90호, 2015.9, 59면 인용.

한 의견, 토의내용이 게재되었고, 결국 1년 뒤 문예진흥정책과 문예진흥 기금에 대한 의견과 공개토론 심포지움을 시행했다. 이 정책들을 전하는 『한국연극』의 지면 할애 비율과 과정, 기사의 지속과 연속성은 공공성 담론에서 연극을 중요한 대상으로 격상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한국연극』은 다양한 정부주도 연극이벤트와 극장공간 증가, 시도립극단 창설 등 눈에 띄는 정책변화와 제도적 지원정책을 전달했다. 『한국연극』이 이처럼 전달하는 정보, 사진, 공연, 희곡에 대해 취하는 선별 혹은 구분을 통한 기사 편집 행위는 일반 저널의 태도와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과 제도와 관련한 대응적인 태도라면, 이 저널의 매커니즘은 다시 이해되어야 한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정치행정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정치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문화예술을 보다 중요한 정책분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게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예예술조직들, 문화예술단체 조직들, 문화예술 애호인 조직들까지도 더 많이 생겨나 문화예술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하게 되며, 이들은 다른 사회분야의 로비단체와 유사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문화예술계의 정치화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인 자신들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한국연극 협회의 기관지로 운영되었던 『한국연극』은 1980년대 이러한 문화정책과정을 반영한 저널로서 역할과 기능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1987년 새로운 공연법에 대한 연극인들의 요구와 희망이 민주화바람과 대통령 직선제를 치르는 후보자들의 중요한 공약에 반영된 경우를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다. 『한국연극』은 1987년 12월호에 대통령 후보들의 연극예술정책이라는 특집 기사를 상당분량으로 게재했다. 흡사 후보자 선거홍보 벽보를 방불케 한 이 기사는 먼저, 후보들의 연극예술 현장과 환경개선에 대한 공약을 소개하는 서면 인터뷰와 이에 대한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방식은 민정당의 노태우, 민주당의 김영삼, 평민당의 김대중, 공화당의 김종필 후보의 순서대로 평소 연극 등 예술

전반에 대한 견해와 연극예술정책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서면으로 받았다. 이렇게 남은 대화와 발언의 흔적들은 행정적 문서가 아닌 연극현장의 생동감을 전제로 한 인터뷰방식이었다. 이후 편집위원의 칼럼을 통해 연극협회장의 직선제 정관개정운동과 직선제 간담회를 정리하며, 연극인을 위한 어떤 제도와 정책변화가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 과정을 기록하였다.

1983년 8월, 제 7회 대한민국연극제가 개최되기 직전, 당시 연극이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상징하는 사진기록이 있다. 이 사진은 당시 전국 연극인대회 개최 현장을 포착한 것이다. 『한국연극』은 당시 이 행사에 이진희 문공부장관과 문화계 인사, 8백 명의 연극인이 참석했다고 전한다. 이 행사는 침체된 연극계에 활기를 위한 연극인 스스로가 마련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언어로 전하는 연극인대회와 현장사진은 기록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당시 이 사진은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던 통치전략을 모방한 신군부의 정치적 이벤트처럼 연극인의 축제라기엔 매우 부자연스러웠다²⁵⁾.

3-2. 대학연극과 지방연극제 조사와 보고서로 구성된 잡지의 편집체제

25) 당시 이처럼 딱딱한 정부기관행사에 동원된 현장사진은 자주 수록되었다. 1980년 예총정화운동과 결의대회현장사진이나, 전국연극인대회 사진은 연극적 이벤트나 축제와는 무관한 정치적 행사였다. 이처럼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주최된 각종 연극제와 축제 행사들은 1980년대 ‘국풍 81’을 떠오르게 한다. 이 때 행사들은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국학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문화축제로 등장했다. 이 사건은 특히 1981년 초 5·18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대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축제가 기획되었던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한국연극』은 이러한 정치사회 분위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양명, 「국풍81과 대학대동제」,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8 참고.

이상 개략적으로 『한국연극』이 전하는 연극축제 텍스트들은 ‘전연극인’의 참여자로서 연극인 상호간의 친목이 정치적인 이벤트와 맞물린 현실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건전한 비평’이라는 명분과 연극제와 공모전을 통해 창작극 활성화는 글쓰기의 검열이 존재했던 시대를 섬세하게 은폐하고 있다. 특히 『한국연극』이 ‘관객의 저변확대 및 관객교육을 위한 안내, 계몽자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연극정보 교환’의 매개형식이자 장소로 역할을 자처했던 것을 주목해 보자. 이 매개방식은 정치적으로 연극이 요긴했던 시대를 상징한다. 특히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국제연극제, 1988년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와 국제연극제가 병행적으로 개최되었던 사실은 이 시대 한국연극을 이해하는 배경이다²⁶⁾.

이 시기 『한국연극』은 정부주도 하에 개최된 대한민국 연극제와 지방(역)연극제, 대학연극제를 취재한 기사들을 상당수 수록했다. 당시 수록된 기사는 <대학극탐방>, <지방연극순례>가 대표적인데, 오랜 기간 연재물로 수록된 기획기사였다. <대학극탐방>은 각 대학의 극단과 극장, 공연 레퍼토리를 소개하는 내용의 기획기사로 게재하였다. 고려대학교·극예술연구회를 시작으로 경희대학교·경희극장, 건국대학교·건대극장, 성균관대학교·성대극예술연구회, 연세대학교·연세극예술연구회, 이화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동덕극예술연구회로 마감되었다. 이후 대학과 연극은 대학의 연극학과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각 대학의 연극반을 조사한 이 보고서는 1980년대 감시와 통제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텍스트다. 1983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문교부

26)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1980년대 전통연극에 대한 관심은 이같은 연극축제를 위한 연극형식으로 소비된 측면이 있다. 1982년에 등장한 마당극연구 논문 수록은 이같은 시대분위기와 같은 맥락에 서 볼 수 있다. 1982년 9월호에는 마당극 특집논단이 마련되어, 「새로운 연극양식으로서 마당극」(김응수), 「마당극의 오늘과 내일」(임진택), 마당극 <돼지풀이>가 수록되었다. 당대연극현장은 정부주도하에 엄청난 재정지원에 휩쓸리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마당극 논의는 민중극으로서 역할과 의의와 마당극 전용극장의 운용논의까지 극장관객의 소비와 향유와 연관된 방향으로 흐른다. 1987년 5월 특집 「마당극의 어제와 오늘」 기사 참고.

주최로 ‘전국대학교 민속서클(탈춤, 농악, 연극) 지도교수 세미나가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당시 문교부가 막대한 경비를 들여 주최한 행사였다. 이 세미나의 근본 취지는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내시위(‘학내소요’라고 표현했다)가 학내 서클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 문제 있는 동아리를 지도하는 방법을 토론했기 위한 자리였다. 때문에 이 세미나에서 연극은 예술이나 연극이 독립적인 동아리가 아니라 탈춤이나 농악반과 같은 민속서클의 한 부류로 이해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연극반의 활동에서 서양작품공연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전통연희를 원용한 활동을 문제대상으로 포착했던 감시자의 시각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이 세미나 그리고, 대학극 탐방은 대학연극활동의 육성이나 연극예술의 발달을 위한 대책과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진수가 전하는 이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대학동아리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이용해 진행된 정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날의 개회사에 이어 연극서클 지도사례 발표순서가 있었다. 서울대 연극반의 막중한 지도책임을 맡은 이찬현 교수는 발표를 통해 연극반의 지도방향을 제시했는데 최근 <산국>, <노비문서>, <멋굿>, <어둠의 자식들>, <학풀이> 등 문제성 있는 공연들로 점철된 서울대 연극반을 지도함에 있어서 철저한 감시와 권위를 성공적 지도의 요체라고 보았다. 그는 공연도중 연출학생의 옆좌석에 앉아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주연배우를 시종 주시함으로써 ‘딴짓’을 못하도록 했고 학생들과 만날 때는 본인의 연구실과 씨클룸을 이용했을 뿐 외부에서의 사적인 접촉은 일체 피했다고 역설하면서 이들 학생을 ‘견제’하고 ‘다루는 데만 오직 몰두했다고 한다. 이 교수의 전공은 농업경제학으로서 ‘연극 같은 것은’ 잘 모르나 연극반 지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음을 과시했다.²⁷⁾”

27) 이날의 세미나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연극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관심을 지도하면서 열

감시와 통제의 시대분위기 속에서 연극을 매개로 억눌린 정서를 표현하면서 위무했을 당시 대학의 젊은 세대들이 캠퍼스와 일상에서 숨 막히는 공포 분위기가 이 기사에서 전해진다. 정진수는 당시 세미나 자료에 실린 한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연극 혹은 대학의 축제와 같은 문화 속에 숨은 의식까지 찾으려 했던 당대 정권, 정부의 감시대도를 볼 수 있다. 정진수가 전하는 상황은 당시 대학가에 극 불미라 말할 정도로 연극 활동이 증가했으며, 그리고 정부당국은 연극의 현실비판적인 경향 때문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이 세미나에 실린 「대학축제와 가면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보고서는 당시 서클의 경향이 ‘민속연극예술 원형의 전수나 그 학문적 정립’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민주화 운동이나 의식화 과정의 일환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우려(憂慮)한다고 전했는데, 이 우려는 곧 감시자의 시선을 대변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연극에 대한 관심은 한국연극에 <지방연극순례> 탐방기사에서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연극을 매개로 학원소요나 현실을 비판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러한 연극공연에 불순세력이 개재됨으로 해서 사회불안의 요인까지 안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의와 애정에 대한 경험을 발표한 교수들도 있어 토론을 통해 결국 대학교육에 연극이 교양지식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진수는 이 세미나 진행내용을 전달하면서 간단히 의견을 덧붙였는데, 이는 당시 1980년대 정부주도하 문화정책과 연극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앞에서도 암시했듯이 이 같은 세미나가 사찰당국이 아닌 이 나라의 교육과 책임을 걸머진 문교부가 주최한 것이라면 소위 민속서클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적으로 학원소요의 요인이라는 쪽보다는 세미나 표제에도 있듯이 ‘대학문화의 건전육성’이란 쪽의 시각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학원소요를 방지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도 이들 서클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쪽이 아니라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이 궁극적으로 실효를 거두리라고 믿는다.” 정진수, 「대학교양 선택과목에 연극을 넣자-문교부 주최 ‘연극반 지도교수 세미나’를 다녀와서」, 1983.2.3, 44-45면 인용.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연극을 편파적으로 이해하여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는 대학연극반을 조사하는 방식과 유사한 지방연극 조사에서도 실행되었다. 한국연극 지방연극순례는 그런 결과물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강원, 전남, 경북, 포항, 인천, 진주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단과 공연레퍼토리를 소개하였다. 이후 지방연극단체에 대한 보고서는 지방연극제를 구성하고 파악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방연극제가 등장하고, 이를 극협회에서 주최하면서, 심포지움을 통해 지방연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정책연구도 진행되었다. 지방연극제의 목표를 살펴보면 ‘문화균점의 일환으로 지방극단만이 참가하는 전국지방 연극제를 마련하여 지방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방연극의 진흥을 도모’하는 자리로 밝히고 있다. 『한국연극』은 매년 한회씩 지방연극제 특집을 게재하였다. 이상의 연재물 형식 텍스트는 1980년대 한국연극의 외피적 현실 기호다. 이 기호는 제도적인 연극지원 때문에 구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연극의 생산구조와 관객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3-3. 문화정책의 본질, 국민교육과 연극담론

『한국연극』에서 문화정책의 수행과 실천은 연극교육 담론으로 전환되어 지속되었다. 『한국연극』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연극교육 담론은 「국민교육과 연극」이다²⁹⁾. 연극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지원 속

28) 80년대 연극축제들은 정치적인 이벤트로 소비된 경향이 적지 않다. 1985년도부터 대 한민국연극제는 연극협회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극비평가워크숍이 연극제 기간에 진행되는 방식이 등장했다. 이후, 통일과 남북문화교류에서 연극의 역할을 의논한 사실을 전하는 기획기사가 등장한다.

29) 이 담론은 문예진흥원 후원으로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12회 연극심포지움 및 14회 연극, 연출 워크숍에서 다뤄진 것이다. 이 내용은 『한국연극』, 1982년 12월호에 심포

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교육연극, 사회교육으로서 연극교육에 대한 관심과 재인식은 지속적으로 수록된 전문가의 논문과 심포지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극교육 담론은 아동연극, 청소년연극, 사회연극, 대학연극교육, 청소년연극교육(연극과목의 정규교과 과정 삽입을 위한 작업의 기초자료조사) 등 세분화되고, 확장되었다. <초중고 연극교육의 필요와 방법, 시론-크리스천 아카데미>, 「대화의 모임」, 1983,4. 1983년 5월 이후에는 연극교육 관련 기사가 대거 등장했다. 어린이와 연극이라는 기획을 시작으로 <어린이 연극의식 조사>를 시작으로, <아동극단 실태와 방향기획취재>, <한국 어린이 연극의 현실>, <중고생 단체동원의 실태와 문제>, <중고생 단체 동원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의 달 명작 연극시리즈> 그리고 <전국대학 희곡교육 실태조사>로 까지 확대되었다. 이 담론들은 1983~84년 동안 ‘청소년 공연예술제’, ‘한국어린이 예술 큰 잔치’ 등 대형 이벤트를 계통해 확장되었다. 어린이 연극으로 한정되었던 연극교육담론은 대학의 연극영화 교육과 교과과정과 과목, 교양교육으로서 연극에 대한 문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변화했다. <연극교육 문제점>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극과 교육담론은 사회교육 방법론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관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단체관객을 대부분 차지하는 학생관객에 대한 문제제기와 활용 등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과정에서 재인용되기도 했다. 연극을 매개로 소통하는 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연극교육과 사회교육 담론을 명분삼아 확대된 인상을 준다. 이상으로 한국연극에 실린 1980년대 연극교육담론은 대학의 연극교육과 연극학과 교과과정, 연극학과 입시문제까지 확대되었다³⁰⁾.

지음 「국민교육과 연극」 발제자들의 강의내용(이근삼의 ‘연극과 환경·여건’, 권오일의 ‘전문 연극인 양성의 문제점’, 이태주의 ‘연극의 교육적 기능’)을 게재했다.

30) 「전국대학의 희곡강좌 실태 조사」(1981.3.8), 「대학 연극영화과의 연극교육」(1983.10)

4. 1980년대 연극정책현장 아카이브의 토대로서 『한국연극』

4-1. 소극장과 공공극장의 형성

『한국연극』은 갑자기 찾아온 풍요로운 극장공간의 시대를 자주 언급했다. 80년대 초반에는 특별기고 혹은 긴급취재 등의 제목으로 소극장을 소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수록했다. 「소극장운영의 실태」(강준혁, 1980년 9월호), 「엘칸토 예술극장을 통해 본 우리연극」(이윤영, 동호), 「마당 세실극장 운영계획을 말한다」(김지일, 1981년 1월호), 「취재수첩: 이색연극공간을 찾아서—극단 에저또의 리허설 극장」(1981년 2월호) 등 소극장을 알리는 기사가 다수 있다³¹⁾. 이외에도 샹터 건물 지하 파랑새 소극장은 아동극과 연극교육 담론이 등장한 이 시대를 상징하는 극장공간이다. 또한 주목할 1980년대 연극담론은 정부 지원과 주도의 공공극장의 필요성과 등장이다. 가장 먼저, 연극인의 상징적 공간인 문예회관이 등장했고, 이후 90년대에 완공되어 연극공간의 지역적 확대와 변화를 예고한 예술의 전당 설계와 설계자 김석철과 인터뷰기사(이태주) 수록은 공공극장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잠실호수 공원에 서울 야외 놀이마당도 개관했다. 이 극장의 개관은 전통연극담론과 공공극장 담론이 공존했던 시대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극장은 전통한옥식의 8각

31) 편집부, 「현장취재: 새로운 연극공간 “살롱 데아뜨르 추”」, 1980.5, 50-52면. 「문공부장관·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소극장 구제를 위한」, 1980.7, 14-15면. 「권두대담: 연극과 문화공간」, 1980.8, 13-21면. 이중한, 「권두대담 ‘제7회 연극심포지움’: 무대예술과 공연장」, 1980.8, 60-65면. 이상일, 「권두대담 ‘제7회 연극심포지움’: 소극장과 문화공간」, 1980.8, 66-71면. 유용한, 「특별기획: 실험극장·전용극장 설립과 그 운영」, 1980.9, 77-83면. 강준혁, 「특별기획: 소극장 운영과 실태」, 1980.9, 84-90면. 이윤영, 「특별기획: 엘칸토 예술극장을 통해 본 우리 연극」, 1980.9, 91-96면. 황철희, 「가능성 타진한 서울 무대」, 1980.11, 56-58면. 강준혁, 「기획시리즈 연극과 경영③ 극장 경영의 원칙과 실제: 소극장의 활동—“공간사랑”」, 1981.10, 15-17면.

지붕의 야외무대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상의 숨 막힐 듯 화려한 연극부흥의 시대를 알리는 이 기사들은 신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신화적 분위기는 1980년 6월 『한국연극』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다³²⁾. 이 특집기사는 소극장과 대극장을 구분했다. 특집 I은 「소극장, 언제 그 불안의 늪에서 헤어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극장의 운명과 문화의 운명」(이중한), 「보호 육상에 중점을 둔 공연법이라야」(강준혁), 「소극장 존속에 대한 제안」(유용환), 「꽃밭을 가꾸듯이」(이윤영), 「소극장 보호 육성의 의미」(서연호) 등이 논의를 이끌었다. 이와 대비되는 특집기사 II는 「새 극장, 문예회관」의 등장에 대한 것이다. 이 기사는 문예회관의 내부 소개와 문예회관에 거는 연극인의 기대를 앙케이트 조사한 뒤 분석한 글을 수록했다. 그리고 특별 인터뷰 「문예회관을 이렇게」(설상영)는 이 공간에 대한 매뉴얼을 소개했던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까지 정부주도의 문화운동에 참여하여 ‘호암아트홀’, ‘현대예술극장’ 등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극장도 다수 등장했다. 이처럼 화려한 건축물과 축제와 공연을 알리는 『한국연극』은 풍요로운 연극시대의 신화들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연극시대 기록은 검열을 거쳐 선별된 공연과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극제와 『한국연극』 저널의 구조 속에서 생산된 텍스트다. 따라서 한국연극이 전하는 신화처럼 화려한 연극공연과 공연장의 증가, 다양성은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민간극단이 공연을 할 수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4-2. 연극제 참가작 창작희곡과 극작·연출노트 수록

대개 국내의 신작희곡을 게재하거나 극작가와 연출가의 창작노트를 수

32) 당시 준공기념으로 진행된 공연은 지신밟기, 남사당풍물놀이, 대취타, 경기민요, 강령탈춤, 가야금병창, 서도소리, 승무, 봉산탈춤, 선소리 타령, 판소리, 북청사자놀이, 송파산대놀이가 공연되었다.

록하는 것은 연극전문지의 미덕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연극』 역시 해롤드 핀터나 피터 웨퍼 등의 「해외 문제작」과 「최신 해외희곡」 등의 지면에서 해외 창작희곡을 지속적으로 수록했다. 1980년대 후반 해외 문제작의 경우 해금조치에 영향 받아 브레히트의 희곡이 다수 번역되어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창작희곡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특별한 경우인데, 황석영(<돼지꿈>), 이문열(<사람의 아들>, 1980.5.) 등의 전문 작가(소설가)의 창작희곡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연극에 실린 희곡의 특징은 대한민국연극제에 출품된 공연작이 다수 수록된 점이다. 연극제 외에 국립극장, 삼성문화재단, 신춘문에 등 대표적인 당대 공모전 당선작들도 자주 수록되었다. 윤조병(<농토>, <모닥불 아침이슬>, <풍금소리>)와 이강백(<쥬라기의 사람들>, <봄날>, <칠산리>)는 『한국연극』에 실린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 창작희곡(극작가)의 대표적인 경우다. 이외에 노경식(<들하 노피곰 도도샤(정읍사)>), 차범석(<金안드레아전>), 오태석(<산수유>)등의 전문 극작가들의 희곡과 대본도 수록되었다. 여기에 실린 창작희곡은 해외희곡과 일부를 제외하고, 연극현장작업과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창작된 희곡(대본)으로 경우에 따라 초연대본이거나 극작가의 원본인 경우도 있다. 또한 소설가들이 직접 희곡으로 개작한 초연원고들도 수록되어 당대 희곡 극작법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1983년 6월호는 이례적으로 1970년대 단막극 희곡을 15편을 수록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한국연극』은 공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 공개된 창구(플랫폼)역할을 했다.

『한국연극』은 우리시대에는 원본, 혹은 초연 대본을 연극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수장고 역할을 한다. 희곡 외에 연출자의 연출노트의 경우는 연극현장 탐구에 더 훌륭한 자료이다. 이 시기에 1980년 차범석의 창작노트가 가장 먼저 확인되었다. 대개 『한국연극』에는 연극제에 참가했던 작품을 수정한 대본의 희곡과 작가노트를 함께 수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윤조병의 <농토>(1981.11. 작가노트 수록)가 있다³³⁾.

『한국연극』은 연출노트 수록을 기획기사로 수록하기도 했다. 1986년 45

월호의 「한국연극의 현주소—연출가」 기획에서 볼 수 있다. 80년대 연출가와 극작가 이해랑, 권오일, 김정옥, 강유정, 허규, 박용기, 임영웅, 김우욱, 김동훈, 안민수, 정진수, 방태수, 김도훈, 손진책의 연출노트를 수록했다. 연출, 극작 노트의 기획 기사는 이후 시리즈로 무대미술가, 지방연극, 소극장 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한 연속기사로 이어졌다.

4-3. 비평공모와 신진평론가의 등단

1981년 7·8월 합호부터 『한국연극』 편집인 구성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학자출신 평론가 그룹과 연극협회를 대표하는 연출가 그룹인원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편집주간 책임 하에 편집위원이 활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편집주간 중심의 변화는 먼저, 표면적으로는 신진 비평가를 발굴하여 기성필진에 의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비평원고를 모집하는 것에서 의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극지는 매달 모든 공연에 대한 모든 비평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한국연극지가 특정 평론가에게 특정 공연에 대한 비평을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한국연극지는 다만 원고의 접수와 게재 사무만을 취급하는 중립적 입장을 지켜 나간다. 이번 호의 비평 청탁을 수락해준 평론가들은 다음과 같다. 이태주, 서연호, 양혜숙, 구희서, 김방욱. 이번 호에 게재된 공연비평은 청탁을 수락한 비평가들이 해당 기간에 관극한 공연 가운데 본인들이 선택한 공연에 대한 비평문 전부임을 밝힌다. 한국연극지는 또한 이 공연비평 난에 대한 연극인들의 기탄없는 조언을 환영한다. 공연비평에 대한 반론은 원고지 5매 이내로 보내주

33) 극작품과 작가노트가 함께 수록된 경우는 대개 연극제 출품작이거나, 각종 공모전 수상작 인 경우에 작가노트가 함께 수록되었다. 그러한 사례로 강태기, 「〈박수, 바람을 타다〉 작품노트 '바람에 대한 질문'」 수록(도의문화저작상 수상. 1982.2·3), 정성주, 「〈어떤날〉 작가노트」 수록(국립극장 공모 가작 당선. 1982.4.)

시면 논리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다음 호에 게재하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아울러 공연 비평의 새 필자를 추천해 주시면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편집회의에서 논의하여 반영토록 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연극』은 개방적인 비평 저널로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당대 연극비평의 현실을 조명하고 진단하는 과정을 주최하고 증언하듯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4년 7월호 「한국연극의 장애점과 그 극복의 모색」이다. 이 기사는 서울 연출가그룹 모임 주도 좌담회를 기록한 것이다³⁴⁾. 좌담회 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영역별로 준비된 원고를 발표하면서 좌담회를 진행했다. ‘공연평론의 문제점’은 강영걸, ‘연극평론 문제’는 김효경, ‘연극상 제도’ 김도훈, ‘관객의 관극훈련’ 채운일, ‘대학 연극학과 문제’ 김상열, ‘연극공연장소 극장 문제’ 기국서, ‘연극지원 실태와 문제점’ 손진책, ‘창작극과 번역극 문제’ 김기주, ‘극단 형태론은 문석봉이 맡았다.

발표는 먼저, 평론의 존재가치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했다. 특히 학자들의 공연비평 글쓰기에 대해 발제를 시작한 강영걸은 평론이 활자매체와 전파언어 뒤에서 숨어 공연생산자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평론가들 대부분이 서양의 평론가처럼 언어 자체만의 논리구조의 명백성과 진실성에 100% 의존하는 위험한 비평을 하는 태도를 문제로 거론했다. 평론이 존재하기 위해서 중요한 디딤돌은 그 지역 또는 그 시대의 예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런 평론과 평론가가 부재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또한, 평론의 영역에 대한 구분이 혼재된 채 비평, 리뷰, 에세이, 평론 쓰기를 지속하는 글쓰기의 양산문제도 지적했다. 매체의 역할에 따라 평론이 생

34) 당시 좌담회 참가자들은 방태수(서울 연출가 그룹 회장), 강영걸(공간사랑 연출가), 김효경(서울예술전문대학 교수, 연출가), 김도훈(극단 뿌리 대표, 연출가), 채운일(세실 대표, 연출가), 김상열(세실 마당극장 연출가), 기국서(극단 '76' 대표, 연출가), 손진책(극단 '민예' 대표 연출가), 김기주(연출가), 문석봉(광장 연출가) 등의 연출가들로 구성되었다. 김도훈 연극협회이사장과 아시테지 이사장 김의경이 초청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산될 필요도 있다는 그의 지적은 『한국연극』의 경우에도 주목할 문제제기다. 『한국연극』은 당대 연극제를 통해 창작회극(연극)을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신인평론가를 발굴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극제와 관련한 비평은 이미 기성비평가들의 영역이었으므로, 한국연극은 신인평론가를 발굴하여 3회추천제로 시작하여 비평지면을 할애하여 양성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2회 추천제의 신인평론가 등용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등단한 비평가로는 김미도, 심정순 등의 비평이 지속적으로 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1970년대 이후로 형성된 비평가그룹 주도의 공연비평은 신진비평가의 등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의 방향이 전개된 인상을 준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본문에서는 한국연극협회 기관지로서 『한국연극』이 처한 1980년대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저널을 고찰해 보았다. 『한국연극』은 정책실행을 전달하는 저널로서 자기형식을 구축해 나갔다. 특히 문화정책의 수행과 검토 등 연극협회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좌담회’ 혹은 ‘대담’의 형식으로 한 『한국연극』의 기사작성과 편집 형식을 구성한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연극문화 정책의 변화와 수행에 관련된 내용의 연극기사 형식이 지속된다. 이 현상은 1980년대 『한국연극』에서 자주 공론화된 연극현장과 정책현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며, 그 사안의 긴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사작성과 편집형식이 되었다. 가령, 공연법의 경우 공연법을 알리기 위한 연극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좌담회로, 그들의 대화는 연극현장의 실태를 전하는 설문조사 형식이 되어 『한국연극』 기사

나 보고서, 결의문, 제안서 등 텍스트로 수록되었다. 『한국연극』이 문화정책과 수행과정에서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 잡지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인 데이터화된 자료들을 수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80년대 『한국연극』이 절반의 시기를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에 영향받고 실현된 과정(프로세스)으로 구성된 저널이기 때문이다. 문학적이고 교양예술의 영역으로 연극을 인식하도록 만든 이전의 연극전문잡지와 차이점은 당대의 문화정책과 사회적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연극협회지로서 『한국연극』의 성격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한국연극협회의 기관지로 운영되었던 『한국연극』은 1980년대 문화정책과정에서 연극협회의 정치적 역할을 반영한 저널로서 역할과 수행과정을 잘 보여준다.

『한국연극』은 1980년대 연극현장이 문화정책과 대응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이 저널이 형성한 연극정책이 수용되고 실행되는 과정은 특별한 시기에 연극과 문화정책, 공공제도로 형성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연극인 협회 정보와 1980년대 각 민간극단의 인명정보와 단체정보, 공연 레퍼토리 다양한 연극 ‘연감’ 양식 그리고 정부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연극축제와 이벤트, 공공극장의 등장 등 1980년대 연극문화가 형성된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이 점은 1980년대 연극문화와 정책변화라는 측면에서 아카이브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로서 1980년대 『한국연극』의 의의를 논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국연극』, 한국연극협회, 1980.1~1989.12.

2. 단행본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서강대학교출판부, 2008.

피에르 부르디외, 현택수 옮김, 『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199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한국연극협회 편, 『공연사 II: 한국현대연극100년』, 월인, 2008

3. 논문

구광모,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12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8.

김경숙, 「한국연극사에서 <사상계>의 위치연구—연극전문지 공백기(1950-60년대)의 <사상계> 극문학 수록양상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9호, 한국문학회, 2018.

김숙경, 「한국연극의 저널리즘 비평연구—80년대 일간지 비평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유미, 「1950-60년대 연극전문비평 형성 과정에서 종합교양잡지의 역할—에디토리얼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56호, 드라마학회, 2018.

김윤정, 「1970년대 연극평론가들의 부상과 정전화의 시작」, 『극예술연구』 제3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0.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8.

이영택, 「韓國 리얼리즘 演劇의 機能分析 : 大韓民國 演劇祭 참가작품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이진아, 「연극전문비평과 연극학 형성기의 계간『연극』의 의미」, 『한국예술연구』 22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8.

_____, 「1970년대 연극전문지 시대와 『연극평론』」, 『한국극예술학회 2019년 제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한양명, 「국풍81과 대학대동제」,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olicy in the 1980's and Institutional Journal of the Korea Play Association *Hangug Yeongeug*

Yang Seira

This paper is a study of *Hangug Yeongeug* in the 1980s. This magazine is a monthly theater journal that produced theater record. This journal contains various types of theatrical texts in addition to data. For example, texts of heterogeneous nature such as dramas, scripts, dramatic criticism, the process of changing dramas, theatrical history data, creative notes of dramatists and directors, overseas theater trends, overseas theater aesthetics, theater interviews, It was recorded. *Hangug Yeongeug* changed into a theater journal as a periodical rather than an art magazine.

In this paper, the *Hangug Yeongeug* was described in the previous academic theater magazines and other journals form the 1980s. First, it is the basic feature of this theater journal that various surveys and reports are includ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journals were constructed using active coverage and research methods in various fields. As a result, there was an article that traces the current theater activities and the theater site and records the questionnaire. The contents were about the specific theatrical environment such as the process of amendment of the performance law in the 1980s, the theater environment and consciousness survey, and the audience consciousness survey. The produced theatrical texts had many report formats such as statistical data, objective and systematic documents and reports.

This change occurred because the way the theater arts magazine was constructed

changed. Not a particular class or expert group participated in the editing and writing of journals, but in the way that professional reporters and editorial staff acted. The way the theater criticism was published also changed. In the 1980s *Hangug Yeongeug*, theatrical criticism in the form of dialogue appeared frequently. The representative form was conversation or discussion.

Hangug Yeongeug was a medium that recorded and preserved information about drama people and theater activities. And it was a special archive in the 1980s theater reality. The first archives feature is a collection of theater associations' information, periodical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group information, and performance repertoire of each private theater in the 1980s. This record was recorded as 'Annual'. Second, various theatrical festivals, events, and various appearances of theater space were recorded. Third, it was the time when censorship institutions existed, and they received financial support and sponsorship from the government as a bronze institution. For this reason, various theatrical discourses and theatrical texts could be produced. Paradoxically, field reports produced with the support of dictatorial governments could be produced in a variety of theatrical texts, unlike other theater magazines. Based on the above data, *Hangug Yeongeug* can be re-understood as a drama archive in the 1980s. However, political and cultural correlation should be fully considered.

Key Words : Cultural Policy in the 1980's, the Foundation of a Theatrical Archive,
Hangug Yeongeug, Korean Theater Festival, Theatrical Journal

접 수 일: 2019년 2월 14일
심사기간: 2019년 2월 16일 - 3월 21일
게재결정: 2019년 3월 22일